

코로나에 멈춰선 5·18 40돌 기념 공연들

서울광장 518명 말러 '부활' 공연 취소
광주·서울 동시 공연 '국악교성곡'도
광주시립발레단 '오월 바람' 7월로 미뤄
광주문화재단 뮤지컬 '광주' 오디션 연기



코로나 19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계획된 공연들이 취소·연기 됐다. 광주시립합창단이 지난 3월 선보일 예정이었던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기원'은 10월로 연기됐다.

올해 40돌을 맞아 기획됐던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연들이 코로나19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들이 대부분 취소됐고 일부는 연기됐다.

먼저 오는 5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18 40주년 기념음악회 '오월, 부활하다'는 취소됐다. 이날 공연에는 전국에서 모인 오케스트라단 140여 명, 합창단 370여 명 등 518명이 참여해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전 악장과 힙합가요 '그날이 오면' 등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참가자들은 4-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합동 연습을 한 후 구자범 지휘자,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등의 솔리스트와 함께 무대에 오를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기획공연 '창작 국악교성곡'도 취소됐다. 이 작품은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대로 5월 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프리뷰 공연을 가진 후 5월 1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시민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전체 대본은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 '영웅' 등을 집필한 배우 한아름 작가가 썼으며 국악교성곡 작곡은 '남을 향한 교성곡', '임을 위한 행진곡' 관현악 서곡' 등을 만든 작곡가 황호준이 맡았었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이 3월 선보일 예정이던 창작발레 '오월 바람'은 7월로 미뤄진

상태다. 무용전공 학생의 시점으로 바라본 1980년 5월의 비현실적인 모습을 그렸으며 안무가 문병남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광주시립합창단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3차례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이었다.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기원' (3월 19일), 장작 칸타타 '달의 춤' (8월 27일), '로시니를 위한 미사' (10월 29일)를 준비했지만 오는 10월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기원'만 선보일 계획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광주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오는 19일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문예회관 측은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출근 날짜를 조정하다보니 재택근무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20일 출근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재택근무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5·18 전국화를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하는 창작 뮤지컬 '광주'의 오디션은 이번달 13-14일에서 5월 25-26일로 미뤄졌다. 제작사 라이브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책에 따라 모든 참가자의 안전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차 오디션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는 9월 25-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9일-11월 8일 흥익대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차용해 제작되며, 국가권력의 폭력과 계략에도 굴하지 않는 시민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 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투입된 한 편의대원(군인)의 고뇌가 중심 줄거리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예수에게 행해졌던 폭력 그 폭력을 사랑으로 갚았던 예수

이승하 시인 '예수·폭력' 펴내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예창작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승하 시인이 '문학들 시인선' 세 번째 권으로 "예수·폭력"을 펴냈다.

시인은 10·26사태와 12·12사태, 광주의 참상이 일어난 대학 시절, 고문 정국을 다룬 시 '화가 몽크와 함께'로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또한 4·19 때 발표경력이었던 아버지와 5·18 때 진압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아들의 이야기를 써 198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시인은 '폭력과 광기의 나날' (1993년)을 시작으로 '공포와 전율의 나날', '갑시와 처벌의 나날' 등을 통해 폭력과 광기가 없는 세상을 희구해왔다. 부활절을 즈음해 발간된 이번 시집은 제목이 보여주듯 '예수'를 매개로 '폭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모두 60여 편이 실린 시집에는 현대 사회의 비극에 성경 구절을 병치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시인은 "예수에게 행해졌던 폭력과 그 폭력을 사랑으로 갚았던 예수의 생애"를 전면에 내세운다.



중동문제뿐 아니라 아우슈비츠, 캄보디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4·19와 5·18 등 역사적 비극을 고발한다. 아울러 아동성폭력, 세월호 등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분노하며 위무한다.

"아이가 울고 있다 어두운 방구석에 숨어서/ 흑흑 흐느끼고 있다 //(중략) // 아이야 울어도 울어도 아침은 오지 않고/ 내가 살아갈 생, 낮이어도 내내 어두울 텐데/ 텔레비전 개그 프로 방청객들처럼/ 어른들은 아이 잉이라고 웃고 있구나..."

위의 시 '슬픔의 나라에서는'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박사방'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의 부조리와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를 날카롭게 들춰낸 특유의 예지를 느낄 수 있다.

이 시인은 에필로그에서 "세상은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폭력과 광기의 나날이며 공포와 전율의 나날이며 갑시와 처벌의 나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초판본 표지 입힌 고전 재출간 인기 상종가

'페스트' '작은 아씨들' '데미안' 등

TV·영화 영향 베스트셀러 순위 역주행

'페스트', '작은 아씨들', '데미안' 등...

최근 초판본 표지를 입힌 고전의 인기가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고전 명작 시리즈가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저평가 베스트셀러 순위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 출판계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고전을 쉽게 소개하는 TV 프로그램 등이 현재의 상황과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이 주목받는 고전 작품을 올리자니 초판본 표지 디자인으로 재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루이자 메이 울컷의 자전적 소설 '작은 아씨들'은 지난 2월 동명의 영화가 개봉하면서 원작 소설 역시 화제가 됐다. 각기 다른 디자인의 '작은 아씨들' 가운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네 자매 중 둘째)의 책을 재현한 오리지널 커버 특별판이 인기를 끌었다.

방탄소년단(BTS)에 영감을 준 책으로 알려진 '데미안'은 최근 TV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소설은 13세 소년인 스무 살 청년이 되기까지의 고독하고 힘든 성장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불안한 청년의 내면을 다룬 소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헤르만 헤세 탄생 140주년 기념으로 1919년 독일 피셔 출판사의 초판본 표지를 입힌 버전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었다.



초판본 표지 디자인으로 재출간된 '작은 아씨들', '데미안', '페스트' (왼쪽부터)

이밖에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염병을 소재로 다뤘던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도 재소환되고 있다.

1947년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를 입혀 출간됐으며 오늘날의 전염병 사태와 맞물려 바이러스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고전을 초판본 표지로 선보이는 '나의 인생 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읽기 쉬운 클래식'을 콘셉트로 초판본 표지와 더불어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휴대성 및 보관이 용이한 핸드북 형태로 가방은 물론 작은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크기다.

1탄 '어린왕자'에 이어 2탄은 국내에도 친숙한 미국의 단편 작가 오 헨리의 작품을 엮은 '오 헨리 단편선'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등 주요 단편 16편이 수록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 국악원 '공모전' 잇따라 개최

'국악동요올동 공모전' 신설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 도

국립국악원이 '국악 동요 올동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이던 '창작 국악 동요 작품 공모전'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한다.

국악원은 "코로나 19로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국악 교육 관련 종사자와 경기 침체로 창작 활동이 위축된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악 동요 올동 공모전'을 마련하고 '창작 국악 동요 작품 공모전' 일정도 앞당겼다"고 9일 밝혔다.

'국악 동요 올동 공모전' 참가자는 국악원이 발굴한 국악 동요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올동을 창작해 영상으로 응모하면 된다. 학교 또는 기관에 채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강

사나 관련 학위 취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수상자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우수상 15명에게도 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들은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국악원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창작 국악 동요 작품 공모전'도 비슷한 기간 열린다. 오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 수상자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400만원, 우수상 10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음반으로도 제작돼 초중학교와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이 대회는 1987년에 개최된 이래 그간 40여 곡의 국악 동요를 보급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문화유산포털 검색 기능 강화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유산포털을 개편해 문화재 정보 접근성을 비롯한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문화유산포털은 국보, 보물 등 주요 지정문화재와 전국 박물관 소장품의 유물정보 등 총 250만여 건의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이다.

이곳은 문화유산 검색, 궁궐·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3D(3차원) 문화유산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문화재 검색' 서비스를 별도 메뉴를 거치지 않고 종목별 검색(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지정종목), 지역별 검색, 조건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문화재 조건 검색에서는 정식 문화재 명칭이 아닌 단어를 입력해도 문화재 설명 안에 해당 단어가 있으면 검색되도록 개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퀵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앞)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금성가설재

나주시 영강길43 (대덕아파트앞)
건축, 자재 임대·매입
신용분위
☎ 061)333-0708, 010-2216-8938

만福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문냉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경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기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신상품으로 중도 리폼 대어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앞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우리뷔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충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성파세로운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의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피라샤,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유가네한우곰팡이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팡이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심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나티오양병원1층
최신시설안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업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정문길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